

“ 감사절은 오는데 ”

■ 이종윤 원로목사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찾아온다. 어떤 이는 1년을 결산하면서 겨우 이것이나 는 자조 속에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감격 속에 인생 을 밝게 살아가는 이가 있다.

내 그릇에 비해 부어주신 은혜가 과분하다.
 다윗은 본래 미천한 목동이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추악한 죄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은총을 입혀주셨다. 다윗은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했다. 나의 사람됨이 선하지도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이나 받을 아니 선한 사람도 받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종의 자리에 서게 하신 복을 내게 쏟아 부어주셨다면 이것이 내 잔이 넘치는 감사요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랴.

내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다.
 농부가 밭을 갈 때 한 고랑을 갈고 뒤를 돌아보면 세 고랑이 갈려진 것을 볼 수 있듯이 나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고 나의 수고에 비해 추수가 풍성하며 업적에 비해 보상을 과분하게 받을 때가 많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나이다”라며 감격하며 찬양을 드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밭세바의 몸에서 솔로몬같은 특출한 아들을 얻었을 뿐이나라, 이런 비행을 범한 자신에게 암몬왕의 면류관까지 획득하는 개선의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황공한 은총이 비밀비재였으니 어찌 감사치 않으리오. 이것이 어찌 다윗왕만의 간증이라.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이 구속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업적에 비해 과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 하심이 크심이라.”

올해도 태풍과 가뭄이 지나갔고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37년 만에 대풍을 주셨고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과 으름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의 안보 상황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에 비해 성과를 크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치 않으리오.

내 기도에 비해 응답이 풍성하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성도의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이고 기쁨이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고 풍성하다면 그 기쁨과 감사가 여뎌하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나 그가 구한 지혜 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까지도 받았다. 이러한 응답은 솔로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수없이 체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오는데 자조보다는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하겠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나의 임종의 날에 마지막 남길 말로 자조가 아닌 찬송이 될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후대하셨기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원래 빈손으로 세상에 온 자임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현재의 처지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 정직한 자라면 빈곤한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특대 받기를 좋아하는 인생들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이러한 내가 이만큼이라도 주님의 권고를 입고 있다는 것은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시비치 말라. 내 지혜를 하나님 위에 놓으려는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믿고 감사절이 오는 이 계절에 범사에 감사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11월 23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두 분의 외부 강사목사님을 모시고 사명자대회 마지막 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소원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 뱃길을 소원합니다.

한편, 오늘 2층 로비에서는 다음주 있을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회원자격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준비된 회원명부를 꼭 열람하시어 본인이나 가족들 이름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시고, 아울러 개정안 초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정상 공동의회에 참석이 어려운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안 말미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오시면 대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에 서울교회 재적교인 전체가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여 다시는 법적 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120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마음 상한 날의 감사 ”

■ 갈라디아서 6:6-10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성경에는 반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노래하며 권고합니다. 우리는 금년의 추수감사주일을 어려운 상황 중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세계적 경제 위기, 참담한 이태원 사건 등 주변의 혼돈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갈라디아교회의 상황
 바울이 갈라디아를 찾게 된 것은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갈 4:13) 갈라디아 교인도들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듯 사랑했고 천사처럼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기에 바울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라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듣고 격한 마음으로 쓴 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한순간에 돌아선 교인들의 모습에서 바울은 충격과 배신감, 실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죽을 만큼 고생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실망 분노 배신감 회의감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가장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며 차분한 자기 관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극복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2. 위기관리 처방들
 첫째 처방은 ‘실망하지 말자’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파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 먹지 못할 생선들이 걸려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물질을 멈춘 어부는 없습니다. 현실이 실망스럽고 일생의 노력이 실패의 위기에 봉착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만 새로운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 때문에 실망과 분노로 상처 입은 영혼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실망과 분노는 대부분 세상의 영광과 유익을 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살에 애굽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권력층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의 목동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감당하기 힘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했더니 고난이 더 유익한 일이었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발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는 ‘영원한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희망의 사람입니다. 아합왕은 이스라엘 전국에 바알 숭배가 만연케 만든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주변이 어둡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우리를 감격적으로 격앙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듯, 바울이 빌립보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듯 위기를 관리하고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의 관점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희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김혜연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김승록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0: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05(감사절1)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591(310)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갈 6:6-1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추수감사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	“마음 상한 날의 감사” 손달익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 찬 송 Hymn	143(141)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추수감사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36:1 인 도 자
찬 송	590(309) 다 합 께
기 도	서은석 장로
찬 송	589(308) 다 합 께
성 경	딤펢전 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충성되이 여기시니 감사” 설 교 자
특별찬양	임마누엘찬양대
* 찬 송	495(271)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안용근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이봉선 권사	II부:	채혜숙 권사
성 경	왕상 11:14-4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솔로몬의 대적들”	설 교 자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본당

설 교

서범석 목사, 송용원 목사

금요일기도회

이번 금요일기도회는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이므로 개인기도로 대신합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본당
	I 부 예 배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소식

☛ 모 임

1. 루디아전도회 모임 / 20일(주) 오후 1시 601호
2. 한나전도회 정기총회 / 20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3. 공동의회 소집 공고
 - 안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일시 : 11월27일(주일) 1부 예배 후부터(오후 4시 투표 마감) 찬양예배 이후까지
 - 장소 : 본당

☛ 알 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2. 추수감사주일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3.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 21일(월)부터 26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 본당에서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14. 교회설립 31주년 /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교회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정주원5	3교구	청년부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p>15.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번째 세례식인 12월 세례(세례, 입교, 개중, 유아세례)식이 12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p> <p>*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 11월 27일(주일)</p> <p>*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 : 12월 4(주일) 낮 12시 20분 602호</p> <p>*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p> <p>*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p> <p>16. 2022년도 대림절묵상집 발간 - 오늘 예배 후 본당 로비에 설치된 각 교구별 테이블에서 배부 개인당 1권씩 받아서 말씀묵상의 은혜 가운데 대림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교회 소개를 위해서 필요하신 경우에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장 레</p> <p>1. 故 이효각 권사(2교구 한인진 집사의 모친, 박정순 권사의 시모) / 11월12일(토) 별세, 11월15일(화) 발인</p> <p>2. 故 임태자 권사(4교구 공민호 집사의 모친, 정운희 권사의 시모) / 11월19일(토) 별세, 11월21일(월) 발인</p>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65명	637명	2,302명	387명	1,745명

내니이가

주님의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들렸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결백을 보이려고 “주여 내니이가?”라고 반문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토록 병들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아닐지라도 우리 중 가롯 유다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내니이가?”라고 묻는 유다에게 “네가 말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회개가 없었다니 나지 않았더면 좋았을 인간이다. 부패한 양심과 거짓말로 위선의 탈을 쓰고 “내 니이가?”라고 말하는 대신 차라리 “주여 나입니다”하고 엎드렸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 다. 감춰 보았자 창자까지 쏟아놓고 말 인간이거늘 언제까지 “내니이가?”로 발뺌만 하고 책임전가만 할 것인가. “주여, 정직한 영을 주사 참말만 하게 하소서!”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십시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금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